

News

한은 "FOMC 결과, 예상에 부합…파월 발언 다소 비둘기적"

연합뉴스

FOMC, 기준금리 0.50%p 인상… 한국은행, "회의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제롬 파월 의장의 "0.75%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비둘기적 해석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상존…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 모니터링과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철저히 점검할 것 언급

시장금리·환율 쌍끌이 급등 영향…은행, 줄줄이 자기자본 확충 나서

경향신문

신한은행, 3,23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기자본비율 0.18%p 상승할 것으로 예상… KB금융, 오는 12일 3,35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공시
최근 금리와 환율 급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해 올 1분기 BIS비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했기 때문… 다만 금리 불안정하다는 변수가 있어… 우리은행은 아직 청약일 미정

새정부 LTV 핀셋 완화에 은행권 "생애 첫 내 집 마련 손님 잡아라"

조선비즈

은행권,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대출 손님 잡기 경쟁에 한층 치열… LTV와 DSR 대출 규제를 전면 풀기보다는 LTV 규제를 한정적으로 푸는 핀셋 규제 완화로 결정했기 때문
선제적으로 대출 영업 강화 중… 주담대 상품 대상 확대하고 속속 초장기 대출 상품 내놓은 것이 그 사례… 이달부터 신한과 농협이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 개시

스타트업 떡잎부터 키우자…금융권 '디지털 펀드' 열풍

한국경제

신한금융, 5일 기준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펀드 출시… 계열사들 공동 출자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했고 신한캐피탈이 펀드 운용 맡아…
KB금융도 작년 말 KB 디지털 플랫폼 펀드 조성해 올해 블록체인과 NFT 등 관련 기업 3곳에 250억원 투자… 하나금융은 투자 대상 물색 중

불안한 증시, 변액보험 성장 멈췄다

보험매일

생보사 판매 변액보험 신계약 초회보험료 증가세가 증시 불확실성으로 눈에 띄게 감소… 올해 2월 변액보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3,594억 7,500만원으로 1년전 대비 68.6% 감소
작년 호황인 증시가 연말부터 하락세 전환 후 올해 들어 잇단 부진세 때문… 올해 금리 인상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 변수

손보사, IFRS17 앞 방카슈랑스 판매량 내리막…MG·롯데·삼성 순 급감

CEO스코어데일리

작년 방카슈랑스 채널 운영하는 15개 손보사가 해당 채널로 거둬들인 원수보험료는 5조 5,417억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
내년 IFRS17 도입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 줄이면서 해당 채널도 영향 받아… 다만 외국계 손보사나 종소형 손보사는 해당 채널 판매 증가한 모습

스타트업 키우자 증권사 직접투자 '봇물'

매일경제

한국투자증권 IB,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사이언트스텝과 로봇 기업 유일로보티스 투자로 50% 이상 연 환산 내부수익률을 거둬…
고성장 기업에 직접 투자 늘려가는 모양새…스타트업에 스스로 투자하며 보다 높은 수익 추구하려는 차원… 다만 시장침체 시 과대 손실 떠안을 위험 존재

고객 돈 쉽게 봤나? …과세 지침 없는데도 세금 물린 삼성·NH·신한금투

조선비즈

국내 AT&T 투자자들, 지난달 14~15일 AT&T 1주에 WBD 신설 상장 주식 0.24주 지급… 다만 증권사 별 해당 주식 입고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세금 적용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1,000주 보유 투자자는 세금 890달러 지급… 금융 및 과세당국은 유권해석 작업 진행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